취업준비 "따로" 학과공부 "따로"

성공적직장생활 성격이 좌우

단과대·성별/분류	전공분야 지식	성격 및 대인관계	외국어실력	성실성	학업자연관계	기타	N
문리대	13 (8.72)	77 (51.68)	10 (6.71)	45 (30.20)	4 (2.68)	0 (0.00)	149 (21.85)
법 대	0 (0.00)	27 (57.45)	0 (10.64)	15 (31.91)	0 (0.00)	0 (0.00)	47 (6.89)
정경대	9 (5.84)	92 (59.74)	26 (16.88)	23 (14.94)	2 (1.30)	2 (1.30)	154 (22.58)
사 대	6 (15.38)	19 (48.72)	3 (7.69)	11 (20.75)	0 (0.00)	0 (0.00)	39 (5.72)
가정대	7 (13.21)	31 (50.00)	3 (5.66)	11 (20.75)	0 (0.00)	1 (1.89)	53 (7.77)
의 대	12 (25.00)	24 (48.89)	0 (0.00)	11 (22.92)	1 (2.08)	0 (0.00)	48 (7.77)
한의대	11 (24.44)	22 (48.89)	1 (2.22)	10 (22.22)	0 (0.00)	1 (2.22)	45 (6.60)
치 대	9 (18.37)	23 (46.94)	2 (4.08)	10 (20.41)	3 (6.12)	2 (4.08)	49 (7.18)
약 대	10 (29.41)	11 (32.35)	1 (2.94)	7 (20.47)	2 (2.88)	2 (2.94)	34 (4.99)
음 대	10 (28.57)	13 (37.14)	0 (0.00)	10 (28.57)	1 (2.86)	1 (2.86)	35 (5.13)
체 대	6 (20.69)	15 (51.72)	2 (6.90)	6 (20.69)	0 (0.00)	0 (0.00)	29 (4.25)
남	53 (12.05)	235 (53.41)	40 (9.09)	96 (21.82)	10 (2.27)	6 (1.36)	440 (64.52)
녀	40 (16.53)	119 (49.17)	13 (5.37)	65 (26.86)	3 (1.24)	2 (0.83)	242 (35.48)
총 계	93 (13.64)	354 (51.91)	53 (7.77)	161 (23.61)	13 (1.91)	8 (1.17)	682 (100.00)

본고는 서울캠퍼스 학생생활연구소(소장 : 서정석교수)가 94학년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생활 및 취업정보에 관한 의식조사이다. 모두 1천94부가 발송되었으며 그 중 7백3부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설문지의 내용은 취업을 위한 구체적 대안마련을 위해 필요한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진로결정, 취업선택과 준비, 취업관련 대학생활 및 면학, 취업정보실 및 학생생활연구소에 관한 문항으로 모두 3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SA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단과대학별 그리고 성별로 정리하였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문항에서는 전체 대상자 중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88.9%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은 7.1%, '관심이 없다'는 4.0%로 나타나서, 취업과 관련한 대학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문항에서는 취업이 63.4%로서 과반수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원 15.0%, 군입대 7.3%, 유학 5.3%, 자영업 2.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가 6.9%였다. 단과 대학별 분석에서도 취업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한의대, 치대, 음대, 체대의 경우 대학원 진학의 비율이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녀별로 비교해 보면 취업하고자 하는 비율이 여학생이 66.7%로서 남학생의 61.6%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학생의 경우 졸업과 함께 입대를 하는 비율이 11.3%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적성 흥미 우선 고려

다음으로 '진로를 위한 준비를 시작한 시기는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4학년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46.16%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3학년이 31.8%였다. 이외에 1, 2학년부터라고 응답한 대상자도 각각 6.8%, 7.2%나 차지하고 있어서 수적으로 적지 않은 학생들이 신입생때 부터 진로에 대한 계획과 구체적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취업에 대한 인식을 지학년부터 심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취업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문항에서는 일을 통한 자아실현이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36.9%가 경제적 안정을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사회적 안정이 18.4%, 사명감이 3.6%, 기타 의견이 3.0%를 차지하였다.

가장 선호하는 업종은 금융업으로 전체의 15.9%이며, 관련 전공학과인 정경대, 법대 학생의 경우 그 비율이 다른 단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다. 다음으로 희망하는 업종은 유통 및 서비스업종으로 15.1%를 차지하고, 이외에는 교직(11.7%), 제조업(10.6%), 개인사업(8.7%), 공무원(5.8%), 언론계(4.6%)의 분포를 보였고, 기타의 경우도 27.6%나 차지하였다. 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남학생이 가장 희망하는 직종은 금융업으로 21.4%가 원하고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교직(19.8%)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남녀 학생 모두 적성, 흥미와의 관련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적성, 흥미와의 일치도가 37.9%의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21.3%가 전공과의 관련성, 본인의 발전 가능성이 16.9%로 나타났다. 이외에 기업의 인지도(11.4%), 급여수준(5.0%), 직업의 안정성(4.8%), 여가사간(1.8%), 복리후생제도(0.7%), 승진의 기회(0.3%)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에 관한 정보의 출처에서는 남녀 학생(각각 34.1%, 43.2%) 모두 친구·선후배·친지가 전체의 37.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취업정보실(25.2%), 신문·방송(21.2%), 전문 취업정보지(6.8%), 기업의 홍보물(2.2%)의 순서로 나타났다. 따라서 졸업예정자들은 취업에 관한 정보를 비교적 개방적인 출처를 통해 얻고 있으며, 특별히 취업정보실로부터 얻은 정보의 비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 있다.

'취업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어느 것인가'라는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의 48.5%가 어학실력을 지적하였으며, 다음으로는 43.1%가 전공실력을 지적하였다. 이외에 소수의견으로는 학원 강의(3.7%), PC공부(1.3%), 부전공(0.9%)이 있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진로결정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은 적성, 흥미와의 일치도 및 전공과의 관련성이고 취업할 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공 공부 못지않게 어학실력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는 남녀 학생 모두 절반에 가가운 대상자(51.9%)가 성격 및 대인관계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성실성이 23.6%를 차지하였고, 13.6%가 전공분야의 지식을 지적하였다. 소수 의견으로는 외국어 실력 7.8%, 학연·지연관계 1.9%, 기타 1.2%가 있었다. '첫 직장을 평생 직장으로 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문항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38.1%로 가장 많았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31.4%, '그렇다'가 23.4%, '전혀 아니다'가 6.1%의 응답분포를 보였다. 물론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직장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다'와 '전혀 아니다'에 응답한 비율도 약 44%가 되므로, 직업관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취업시 대졸 초임 수준에 대한 기대치 분석에서는 70~80만원이 36.1%로 가장 많고, 60~70만원대는 21.9%, 100만원 이상은 14.4%, 90~100만원은 13.8%, 80~90만원이 12.2%, 50~60만원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8.0%)이 초임수준은 60~80만원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아 현재의 대졸 초임과 차이가 없음을 보이고 있다. 성별에 따라 구분하면 남학생의 경우 70~80만원(38.4%)에 가장 많이 응답했지만, 여학생의 경우에는 60~70만원(35.7%)의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대졸 초임의 기대치에서 여학생이 더 낮은 초임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현재 여학생의 취업이 편보면 여학생(13.3%)이 남학생(7.6%)보다 부전공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부전공을 하는 경우 취업과 관련이 있는가'라는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의 32.5%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나머지 67.5%는 관련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졸업예정자들 중 부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은 소수에 달하며, 부전공과 취업과의 관련성은 대체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향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생활에 관한 문항은 응답자의 대학에서의 면학태도 및 만족도, 교과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에서의 면학태도 중 본인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문항에 대해 대상자의 23.3%가 '학점을 착실히 취득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수업은 물론이고 그 밖에 자주적인 주제를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면학에 힘쓴다'와 '수업보다는 오히려 혼자서 자유롭게 주제를 정하여 공부하고 있다'(각각 20.8%), '수업보다는 오히려 인생, 사회문제 등 과외활동에 열심이다'(18.1%), '특별히 정해서 하는 것은 없고 시험이 다가오면 다른 사람의 노트 등을 적당히 이용하거나, 아무 생각없이 지내고 있다'(3.1%)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졸업예정자들은 대학에서의 공정적 면학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특별히 정해서 하는 것은 없고 시험이 다가오면 다른 사람의 노트 등을 적당히 이용하거나, 아무 생각없이 지내고 있는 학생의 비율도 17.1%나 차지하고 있어서 단순히 신입생만이 아닌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대학생활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며 강의주체인 교수나 강사들도 더 많은 학생이 강의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점따기 공부'여전

대학생활 4년동안 수업의 충석률에 대한 질문에서는, 수업기간의 80%이상을 참여한 학생들이 56.3%, 수업기간의 60~80%를 충석한 학생이 22.0%, 13.2%는 결석없는 100%출석을 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70%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충실히 출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수업태도로써 출석했는가라는 문항에서는 '수업에 관심이 있어서'(37.9%), '출석을 부르니까'(18.5%), '시험이 걱정이 되어서'(18.5%), '기타'(12.2%),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2.9%)의 순서대로 응답하여 비록 조사 대상자들의 출석률이 비교적 높다하여도 수업을 임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수동적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학과 교수의 학생 상담 및 지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과반수가 넘는 52.6%가 비교적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매우 필요(32.7%), 비교적 불필요(8.6%), 모르겠다(4.1%), 매우 불필요(2.0%)하다고 응답하여서, 95학년도 졸업예정자 대부분은 교수의 학생 상담 및 지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높았다.

한편 대학생활 4년 동안의 만족도 평가에서는 보통이 4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비교적 만족 36.8%, 비교적 불만족 15.2%, 매우 만족 3.5%, 매우 불만족 3.5%의 순으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교과과정에 대한 내용에서는 유사학과 계열화에 대한 인식도, 교양과목 중가에 대한 평가, 교양과목 중 강화되어야 할 영역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유사학과 계열화에 대한 인식도 문항에서는 전체 응답자 대다수가 비교적 필요(51.6%), 매우 필요(17.2%), 비교적 불필요(19.5%)하거나 매우 불필요(8.3%)하다고 응답하여 대부분 유사학과의 계열화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교과과정 중 교양과목을 늘리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에서는 비교적 찬성(51.2%), 매우 찬성(18.9%)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대부분이어서 학생 스스로 교양과목 확대에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반면에 비교적 반대(20.0%)하거나 매우 반대(8.6%)하는 학생의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과목 중 강화되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어학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취업과도 관련이 있는 과목으로서 전공 뿐 아니라 취업준비를 위해서도 그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외에 철학과목에 대한 요구도가 17%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문학, 체육, 역사, 과학 및 공학, 사회과학 그리고 예술에 대한 요구도는 모두 5%내외로 비교적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부직에 관한 문항에서는 아르바이트 경험여부와 아르바이트의 동기에 대한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대학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86.7%로써 경험이 없는 학생(13.3%)에 비해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남녀별 분포를 비교해 보면 여학생(91.8%)이 남학생(83.9%)보다 상대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각 단과대학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치대(63.3%)의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낮았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기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응답자의 39.7%가 여행비, 용돈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생활비를 위하여(23.6%), 사회생활의 경험을 쌓기 위해(21.2%), 수업료를 충당하기 위해(10.1%), 내구소비재(전자제품, 자동차) 구입을 위하여(2.2%), 취업준비를 위하여(0.9%)의 순으로 응답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목적은 경제적 필요에 의한 것임을 반영하고 있다.

응답자 중 수강했던 학원의 유형별 분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즉 타자, 컴퓨터학원이 85%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어학학원이 72%, 이외에 질반정도가 예술 및 취미계열 학원과 스포츠 계열 학원을, 그리고 40%정도는 전공학원을 다녀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정보실 홍보 미흡

본교 취업정보실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하여 취업정보실의 이용실태,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였다. 먼저 본교 취업정보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55.0%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45.1%는 알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하여서, 취업정보실에 대한 홍보가 여전히 미흡하여 보여 주었다. '본교 취업정보실의 단말기를 통하여 취업정보를 활용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문항의 분석표를 성별로 살펴보면 활용경험이 없는 비율은 여학생(60%)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활용 경험이 있는 집단이 50.4%, 활용 경험이 없는 집단이 49.6%로써 팔은 향과 관련하여 취업정보실의 정보기능에 대한 홍보 강화가 보다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취업정보실을 이용하여 정보를 참고하였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35.2%가 '보통이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비교적 많이' 24.6%, '전혀 아니다' 16.9%, '비교적 조금' 15.7%, 매우 많이 7.7%의 순으로 응답하여 본 취업정보실을 통하여 취업정보를 이용한 학생들은 비교적 도움이 되고 있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취업정보실에서 특강을 개설할 경우 필요한 과목에 대한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각 단대별이나 성별에 큰 차이없이 가장 많이 지적된 과목은 어학과목(63.3%)이며, 다음으로는 PC과목(17.4%), 상식(6.1%), 무역학(5.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경제학, 경영학, 한문, 기타 과목에 대한 요구도는 5%미만으로 그 필요성이 매우 낮았다. 그러므로 어학과목에 대한 특강 개설의 요구가 매우 절실함을 알 수 있다.

인성·적성검사 활용안해

취업정보실의 기능 중에서 모의 일반면접 및 영어 면접실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문항에서는 38.6%가 보통이라고 답하였으며 38.3%는 비교적 유익했다고 평가했고, 다음으로는 매우 유익했다 11.0%, 비교적 무의미했다 8.9%, 매우 무의미하다 3.2%의 비율을 보였다. 취업정보실 활동에 대한 1994년도 평가에 대하여 보통(55.8%), 비교적 향상(32.4%), 매우 향상(4.1%), 매우 퇴보(4.0%), 비교적 퇴보(3.8%)의 순으로 응답분포를 보여, 대부분의 응답자가 향상하고 있다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끝으로 취업정보실이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라는 문항에서는 정보제공확대(39.7%), 시설확충(23.1%), 장소 확장(17.6%), 기업 설명회 증가(6.9%), 친절과 봉사(5.9%), 적절 증원(3.9%)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성 및 적성검사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22.4%로 검사를 받아 본 경험이 없는 학생(77.6%)에 비해 매우 적었다. 그렇다면 본 연구소에서 받아본 인성 및 적성검사가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졸업예정자 응답자의 44.9%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2.7%는 비교적 많다고 답하였고, 다음으로는 비교적 조금(14.0%),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13.6%), 매우 많이 도움이 된다(4.8%)의 순으로 응답분포를 보였다. 이로써 응답자의 86.4%가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소의 학과 출장 및 정기적 인상·적성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는가라는 질문에서는 비교적 필요(43.4%), 보통(28.7%), 매우 필요(16.5%), 비교적 불필요(7.6%), 매우 불필요(3.9%)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어서 출장 및 정기적 인성·적성 검사가 활성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생활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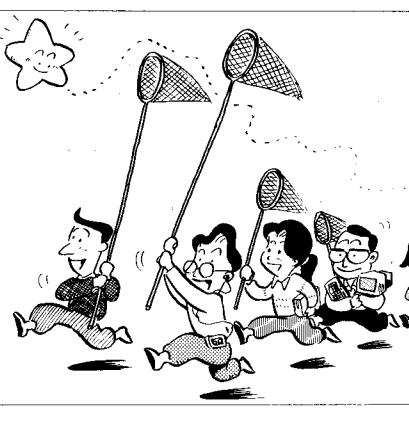
단과대·성별/분류	50-60만원	60-70만원	70-80만원	80-90만원	90-100만원	100만원이상	N
문리대	1 (0.67)	43 (28.86)	59 (39.60)	19 (12.75)	16 (10.74)	11 (7.38)	149 (21.94)
법 대	0 (0.00)	12 (25.00)	14 (29.17)	10 (20.83)	8 (16.67)	4 (8.33)	48 (7.07)
정경대	1 (0.65)	24 (15.69)	71 (46.41)	25 (16.34)	19 (12.42)	13 (8.50)	153 (22.53)
사 대	0 (0.00)	12 (30.77)	20 (51.28)	4 (10.26)	3 (7.69)	0 (0.00)	39 (5.74)
가정대	1 (1.89)	29 (54.72)	14 (26.42)	4 (7.55)	2 (3.77)	3 (5.66)	53 (7.81)
의 대	1 (2.13)	7 (14.89)	6 (12.77)	7 (14.89)	9 (19.15)	17 (36.17)	47 (6.92)
한의대	1 (3.28)	0 (0.00)	11 (26.19)	4 (9.52)	7 (16.67)	19 (45.24)	42 (6.19)
치 대	2 (4.08)	6. (12.24)	16 (32.65)	1 (2.04)	11 (22.45)	13 (26.53)	49 (7.22)
약 대	0 (0.00)	6 (17.14)	6 (17.14)	3 (8.57)	7 (20.00)	13 (37.14)	35 (5.15)
음 대	2 (5.88)	6 (17.65)	12 (35.29)	6 (17.65)	3 (8.82)	5 (14.71)	34 (5.01)
체 대	1 (3.33)	4 (13.33)	16 (53.33)	0 (0.00)	9 (30.00)	0 (0.00)	30 (4.42)
남	5 (1.14)	63 (14.38)	168 (38.36)	54 (12.33)	72 (16.44)	76 (17.35)	438 (64.51)
녀	5 (2.07)	86 (35.68)	77 (31.95)	29 (12.03)	22 (9.13)	22 (9.13)	241 (35.49)
총 계	10 (1.47)	149 (21.94)	245 (36.08)	83 (12.22)	94 (13.84)	98 (14.43)	679 (100.00)

희망직종 1순위 금융업

단과대·성별/분류	개인사업	제조업	금융업	언론계	공무원	교직	유통및서비스업	기타	N
문리대	6 (4.03)	12 (8.05)	11 (7.38)	16 (10.74)	13 (8.72)	24 (16.11)	27 (18.12)	40 (26.85)	149 (21.56)
법 대	0 (0.00)	1 (2.08)	25 (52.08)	3 (6.25)	9 (18.75)	0 (0.00)	4 (8.33)	6 (12.50)	48 (6.95)
정경대	9 (5.88)	44 (28.76)	62 (40.52)	7 (4.58)	6 (3.92)	2 (1.31)	19 (12.42)	4 (2.61)	153 (22.14)
사 대	1 (2.56)	1 (2.56)	3 (7.69)	1 (2.56)	1 (2.56)	21 (53.85)	5 (12.82)	6 (15.38)	39 (5.64)
가정대	0 (0.00)	3 (5.77)	3 (5.77)	2 (3.85)	4 (7.69)	9 (9.62)	12 (23.08)	22 (44.28)	52 (7.53)
의 대	4 (8.00)	3 (6.00)	1 (2.00)	1 (2.00)	1 (2.00)	7 (10.00)	5 (14.00)	28 (56.00)	50 (7.24)
한 의	14 (29.17)	0 (0.00)	0 (0.00)	0 (0.00)	0 (0.00)	3 (6.25)	12 (25.00)	19 (38.58)	48 (6.95)
치 대	13 (26.00)	4 (8.00)	4 (8.00)	1 (2.00)	0 (0.00)	3 (6.00)	6 (12.00)	19 (38.00)	50 (7.24)
약 대	9 (26.47)	2 (5.88)	0 (0.00)	0 (0.00)	3 (8.82)	0 (0.00)	5 (14.71)	15 (44.12)	34 (4.92)
음 대	0 (0.00)	1 (2.70)	0 (0.00)	0 (0.00)	0 (0.00)	10 (27.03)	1 (2.70)	25 (67.57)	37 (5.35)
체 대	4 (12.90)	2 (6.45)	1 (3.23)	1 (3.23)	3 (9.68)	8 (25.81)	6 (19.35)	6 (19.35)	31 (4.49)
남	51 (11.49)	66 (14.86)	95 (21.40)	21 (4.73)	31 (6.98)	32 (7.21)	68 (15.32)	80 (18.02)	444 (64.25)
녀	9 (3.64)	7 (2.83)	15 (6.07)	11 (4.45)	9 (3.64)	49 (19.84)	36 (14.57)	41 (44.94)	247 (35.75)
총계	60 (8.68)	73 (10.56)	110 (15.92)	32 (4.63)	40 (5.79)	81 (11.72)	104 (15.05)	121 (27.64)	691 (100.00)

기업체 선정시 업종 중시

단과대·성별/분류	소재지	업종	직종(부서)	보수	회사명	기타	N
문리대	7 (4.70)	60 (40.27)	54 (36.24)	17 (11.41)	8 (5.37)	3 (2.01)	149 (22.14)
법 대	2 (4.26)	24 (51.06)	14 (29.79)	5 (10.64)	2 (4.26)	0 (0.00)	47 (6.98)
정경대	2 (1.30)	72 (46.75)	42 (27.27)	26 (16.88)	5 (3.19)	4 (2.60)	154 (22.88)
사 대	2 (5.26)	18 (47.37)	9 (23.68)	6 (15.79)	0 (0.00)	3 (7.89)	38 (5.65)
가정대	3 (5.66)	16 (30.19)	22 (41.51)	6 (11.32)	4 (7.55)	2 (3.77)	53 (7.88)
의 대	0 (0.00)	20 (42.55)	12 (10.64)	12 (25.53)	6 (12.77)	4 (8.51)	47 (6.98)
한의대	4 (10.26)	12 (30.77)	10 (25.64)	11 (28.21)	0 (0.00)	2 (5.13)	39 (5.79)
치 대	8 (16.33)	16 (32.65)	20 (40.82)	4 (8.16)	0 (0.00)	1 (2.04)	49 (7.28)
약 대	0 (0.00)	14 (41.18)	15 (44.12)	5 (14.71)	0 (0.00)	0 (0.00)	34 (5.05)
음 대	0 (0.00)	20 (58.82)	6 (17.65)	3 (8.82)	0 (0.00)	5 (14.71)	34 (5.05)
체 대	2 (6.90)	12 (41.38)	8 (27.59)	5 (17.24)	2 (6.90)	0 (0.00)	29 (4.31)
남	18 (4.11)	190 (43.38)	121 (27.63)	75 (17.12)	20 (4.57)	14 (3.20)	438 (65.08)
녀	12 (5.11)	94 (40.00)	84 (35.74)	25 (10.64)	10 (4.26)	10 (4.26)	235 (34.92)
총 계	30 (4.46)	284 (42.20)	205 (30.46)	100 (14.86)	30 (4.46)	24 (3.57)	673 (100.00)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전공실력 43.1%
어학실력 48.5%
학문강의 3.7%
PC공부 1.3%
부전공 0.9%

금융업 가장 선호, 여학생은 교직 희망 많아
적극적 직업관에 대한 소양교육 필요
취업대비한 어학과목 특강 개설 요구 절실